



즉시 배포용: 2018 년 11 월 13 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및 DE BLASIO 시장, 아마존(AMAZON)이 새로운 기업 본사를 위한 장소로 롱아일랜드를 선정했다고 발표

뉴욕주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경제 개발 프로젝트가 진행될 새로운 기업 부지

평균 연봉 15 만 달러 이상의 새로운 일자리를 25,000 개에서 40,000 개 만드는 아마존(Amazon), 15 년 동안 36 억 달러 이상 투자하여 25 년 동안 조세 수입 275 억 달러 창출

뉴욕에 900 퍼센트 이상의 투자 수익을 제공하는 수십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해 경쟁한 북미 전 지역의 238 개 도시

Andrew M. Cuomo 주지사와 Bill de Blasio 시장은 오늘, 아마존(Amazon)이 퀸즈의 롱아일랜드 시에 새로운 본사를 설립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결정은 수십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를 위해 북미 전 지역의 238 개 도시가 경쟁한 결과 종합적인 1 년 동안의 선정 과정을 거쳐 나왔습니다.

2019 년에 아마존(Amazon)은 향후 10 년 동안 롱아일랜드 시의 워터프론트에 400 만 평방 피트의 상업 공간을 건설하면서 원 코트 스퀘어(One Court Square)에서 최대 50 만 평방피트를 점유하게 됩니다. 향후 15 년 동안 최대 800 만 평방피트까지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집니다. 아마존(Amazon)은 36 억 달러의 총 투자를 통해, 2029 년까지 뉴욕주의 다양하고 재능있는 인력을 고용하는 25,000 개 이상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예정이며, 2034 년까지 평균 연봉 15 만 달러 이상의 일자리를 최대 4 만 개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 이 공사는 2033 년까지 매년 평균 1,300 개의 건설직 일자리를 직접 만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반적으로 이 프로젝트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일자리를 총 107,000 개 이상 만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25 년 동안 새로운 주정부 조세 수입 140 억 달러 이상, 시정부 조세 수입 순이익으로 135 억 달러를 거둘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프로젝트는 9 대 1 의 투자 수익을 제공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취임했을 때, 저는 성장하는 회사와 미래의 산업을 유치하기 위해 매력적인 비즈니스 환경을 재정적으로 책임지면서 육성하여 새로운 뉴욕주를 건설하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 공약 이상의 것을 수행해 왔습니다. 오늘 아마존(Amazon)은 롱아일랜드 시에서 본사를 확장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뉴욕은 미국 역사상 가장 크고 경쟁력을 갖춘 경제 개발 투자 중 하나를 유치했다고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마존(Amazon)이 퀸즈에서 만들게 될 수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에 평균 15만 달러의 연봉을 지급할 경우, 경제적인 기회와 투자가 이 지역 전체에서 번창할 것입니다. 아마존(Amazon)은 뉴욕이 회사의 성장을 지속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K-12 기술 교육 및 미국 최초의 엑셀시어 장학금(Excelsior Scholarship) 프로그램과 같은 교육 프로그램과 결합하여 1,000억 달러가 넘는 규모의 뉴욕주 역사상 가장 야심적인 인프라 구축 프로그램은 아마존(Amazon)을 위해 장기적인 성공과 독보적인 인재 집단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는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으려는 뉴욕시 경제 건설을 향한 우리 여정 속의 거대한 발걸음입니다. 아마존(Amazon)이 두 번째 본사로 뉴욕시를 선택한 것에 대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뉴욕 주민은 새로운 고임금 일자리 수만 개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존(Amazon)은 세계 최고의 인재들을 확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시립 대학 학생 및 공공 주택 주민을 포함하여, 새로운 경제에서 자신의 기반을 찾고 있는 수천 명의 사람에게 기술 분야의 훌륭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이 기회를 활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시정부와 주정부는 아마존(Amazon)의 확장이 현명하게 계획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인접지역에 필요한 교통, 학교, 인프라 등을 보장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라고 **de Blasio** 시장은 말했습니다.

주정부, 시정부, 아마존(Amazon) 사이의 양해 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를 [여기](#)에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난해에 아마존(Amazon)은 북미 지역에서 추가로 본사를 운영하기 위해, 한 곳 이상의 장소를 선택하려고 제안 요청서(Request for Proposals)를 발표했습니다. 그로 인해 230곳이 넘는 대도시 지역들이 전례가 없는 경쟁을 벌였습니다. 뉴욕시 및 뉴욕주의 공동 제안은 아마존(Amazon)의 빠른 성장 속도에 따라 요구되는 일자리를 채울 수 있는 뉴욕의 독보적인 인재와 학술 기관의 역량, 공립 학교, 인력 교육 프로그램 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뉴욕주 및 뉴욕시 경제 개발 담당 공무원들은 선정되기 위해 강력한 제안서를 제출하려고 공조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한 해 동안 아마존(Amazon)과 긴밀히 협력했습니다.

역동적인 예측 및 정책 분석 분야의 세계적인 선두 주자인 주식회사 레미(REMI, Inc.)의 경제 영향 평가 연구에 따르면, 아마존(Amazon) 프로젝트는 초기 25년 동안 뉴욕주 경제를 위해 1,860억 달러가 넘는 주내 총생산(Gross State Product)을 발생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레미(REMI)는 또한 2019년의 달러 가치로 주정부의 새로운 조세 수입 총액이

140억 달러 이상에 이를 것으로 예상합니다. 연간 세수는 2019년의 1,080만 달러에서 2043년에는 약 10억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정부는 새로운 조세 수입으로 총 135억 달러를 거둘 것으로 예상합니다.

아마존(Amazon)과의 시정부 및 주정부 협약에는 공동으로 기금을 지원하는 10,000평방피트 규모의 현장 고용 센터를 지역 주민에게 일자리 및 취업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건설하겠다는 공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500만 달러 규모의 투자로 잡스플러스(JobsPlus) 프로그램이 퀸즈브리지 하우스스(Queensbridge Houses)로 확장되고, 향후 10년 간 약 1,800명의 주민에게 수업료가 무상인 기술 교육이 확대되어 주민에게 제공됩니다.

이 협약으로 또한 약 600석 규모의 새로운 중등 공립학교, 3.5에이커의 워터프론트 산책길 및 공원 등을 확보합니다. 그리고 지역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파악할 수 있는 교통 및 기타 인접지역의 우선 과제를 제공하기 위해, 프로젝트의 파일럿(PILOT) 수익금의 50퍼센트를 투자하기 위한 롱아일랜드 시 인프라 기금(Long Island City Infrastructure Fund)을 설립합니다.

Alicia Glen 부시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일은 뉴욕이 거둔 커다란 승리입니다. 우리 인력, 인접지역, 경제의 놀라운 다양성 때문에 이곳을 선택한 아마존(Amazon)의 본사 확장 결정으로 이제 뉴욕시가 혁신과 기술을 위한 세계의 중심지라는 사실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아마존(Amazon)의 36억 달러 투자뿐만 아니라 일자리 훈련, 공공 용지, 교육, 인프라 등에 대한 투자로 롱아일랜드 시는 이 지역에서 가장 활기찬 상업 지구 중 한 곳이 될 것입니다.”

엠펜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 ESD)의 사장 겸 최고경영자인 Howard Zemsky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일은 뉴욕이 거둔 엄청난 승리입니다. 제안서를 제출한 주의 모든 도시를 지원함으로써, 엠펜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SD) 역사상 가장 커다란 규모의 거래를 뉴욕주에 유치하게 된 것을 저희는 대단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평생 한 번 밖에 없는 이러한 기회는 뉴욕주 전 지역에 자리 잡고 있는 세계적인 수준의 단과 대학 및 종합 대학에 대한 찬사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인력의 유능함과 다양성을 입증한 것입니다. 뉴욕은 디지털 미디어, 영화 제작, 관련 상품, 패션, 광고, 농업 및 식품 가공 산업, 핀테크, 기타 많은 산업 등을 포함하여 아마존(Amazon)의 비즈니스와 관련된 수많은 분야 및 산업계의 선두 주자입니다. 혁신의 역사를 공유함으로써, 뉴욕과 아마존(Amazon)은 함께 더 빠르고 현명하게 성장할 것입니다.”

뉴욕시 경제 개발 공사(New York City Economic Development Corporation, NYCEDC)의 James Patchett 사장 겸 최고 경영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시는 아마존(Amazon)의 두 번째 본사를 유치하게 되어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는 이 회사가 미국 전 지역에서 새로운 본사 대상지를 찾기 시작한 첫 날에 저희가 느꼈던 것과

같은 감정을 오늘 느끼고 있습니다. 뉴욕보다 아마존의 두 번째 본사(HQ2)를 위한 환경이 더 잘 갖추어진 도시는 북미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최고로 명석하고 다양한 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사실상 모든 산업의 본거지이기도 합니다. 최고의 학문적 직관에서 풍부한 역사를 정의하는 문화의 용광로로 유명한 우리의 다양성에 이르기까지, 뉴욕은 우리가 제공하는 모든 분야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우리는 뉴욕시에 아마존(Amazon)이 자리 잡은 후 모든 이에게 도움이 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우리의 주정부 파트너, 지역 정부의 선출직 공무원, 지역사회 일원들과 계속 협력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뉴욕에 수십억 달러 규모의 이 혁신적인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해, 주정부는 총 17억 500만 달러의 성과 기반 인센티브 패키지를 제공했습니다. 이 패키지에는 엑셀시어 일자리 프로그램(Excelsior Jobs Program)을 통한 세액 공제 12억 달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25,000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아마존(Amazon)의 공약을 10년 동안 집행될 23억 달러 이상의 투자와 더불어 5억 500만 달러의 자본 보조금을 통해 직접 실현합니다. 이 보조금은 15년 동안 36억 달러를 투자하여 4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것이라는 아마존(Amazon)의 공약과 직접 관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회사와 주정부 및 시정부는 뉴욕시 고유의 기술 교육 및 고용에 중점을 두고 인력이 부족한 분야를 대상으로 한 새로운 인력 개발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각각 500만 달러씩 총 1,500만 달러를 투자합니다. 이 계획이 지원하는 프로그램에는 지역사회 기반의 속성 기술 교육 프로그램, 인턴십, 고등학생을 위한 직업 기반 학습 기회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법이 승인한 정당한 권리가 있는 프로그램에 따라 아마존(Amazon)은 ICAP을 통한 부분적인 재산세 감세 혜택을 받을 자격이 되며, REAP에 따라 자격이 되는 직원에 한해 12년 동안 연간 3,000달러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REAP은 맨해튼 외부의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권장하는, 모든 회사가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아마존(Amazon)의 10개년 확장에 대한 REAP의 혜택은 2038년까지 8억 9,700만 달러로 예상됩니다. ICAP로는 약 3억 8,600만 달러를 감세받을 수 있습니다.

롱아일랜드 시는 5개 자치구 중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지역 중 한 곳입니다. 새로운 주민과 새로운 일자리를 유치하는 데 필요한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시정부는 이 지역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꾸준히 늘려왔습니다. 인접 지역 전체에 계획된 인프라 투자는 모두 합해서 24억 달러가 넘습니다. 이 투자에는 새로운 학교, 공공 용지, 교통 등을 위해 최근 시정부가 발표한 1억 8,000만 달러의 투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정부 및 시정부는 인근의 퀸즈 웨스트를 포함하여 대규모 시정부 및 주정부 발주 개발 프로젝트를 위해 일반적으로 진행되는 환경 영향 검토를 수행하여 일반 프로젝트 계획(General Project Plan)을 개발하기 위해, 이 회사 및 현지 지역사회와 협력할 예정입니다. 주정부, 시정부, 지방 선출직 공무원 대표 등이 포함되는 지역사회

자문위원회(Community Advisory Committee)가 설립됩니다. 또한 역사가 오래된 지역사회 개발업체인 플랙솔(Plaxall)이 아마존(Amazon)의 새로운 본사를 보완하는 계획을 포함하여 인접 워터프론트 부지 개발을 진행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소수계 및 여성 소유 기업(Minority and Women-Owned Business Enterprises, MWBE)에 관련된 뉴욕주 법과 이용 목표의 적용을 받습니다. 뉴욕주는 소수계 및 여성 소유 기업(MWBE)의 참여율을 미국에서 가장 높은 목표인 30 퍼센트로 설정했습니다.

아마존(Amazon)은 이미 뉴욕시에 몇 가지 중요한 투자를 집행했습니다. 이 회사는 기존 기업 사무실, 스탠튼 아일랜드의 유통 및 상품 배송 센터, 소호의 소매 공간 등을 포함하여 5 개 자치구 전 지역에 상당한 규모의 시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아마존(Amazon)은 맨해튼 웨스트 사이드의 상업 지역에서 36 만 평방피트의 임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또한 아마존(Amazon)은 뉴욕시의 시설을 상당히 확장하여 2,000 개가 넘는 일자리를 만들게 되는, 두 번째 상품 배송 센터를 개발하기 위해 최근 우드사이드에서 83,000 평방피트 규모의 건물을 구입했습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구독 취소](#)